

생활정보

15초이내 접속불량은 무료

다음달부터 PC통신 이용 때 처음 15초 이내에 접속이 끊어지면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 연체 불이익 강화

7월부터 여러 개의 신용 카드중 하나만 연체하면 다른 카드도 이용한도가 줄거나 심지어 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8월부터 근로세 경감 혜택

연급여 15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는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동안 근로소득세를 환급도 내지 않거나 일부 돌려받게 된다.

국내 외국어 어학연수 프로

한국의국어대 생활협동조합은 7월부터 이 대학 용인 캠퍼스에서 국내 외국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연다.

우체국 전자상거래 실시

정보통신부는 7월1일부터 우체국 전자상거래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지역 특산품 1천7백여 품목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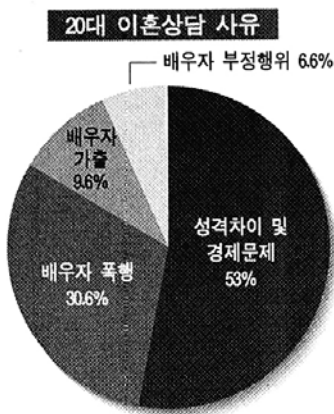
현대미술과 옷의 접목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7월28일까지 '아트·아트웨어' 그 결과 '안'전을 열고 옷이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을 보여준다.

화난다고 이혼하는 신세대

20대 이혼사유 '성격차·경제문제' 53% '사랑 지키고 가꾸는 노력 부부의 도리'

한평생을 불처럼 따뜻하게 보낸 부부도 아홉달만,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며 투쟁하고 인내하고 마침내 바다처럼 흘러가는 부부도 아름답다.



가정법률상담소 통계자료 (58.2%) 40대(60.8%)에 비해 많았다. 지난 20일 법원은 아내를 구박하며 외도를 일삼던 한 대학교수가 아내의 가사소송과 있던 가출을 이유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해 화제를 모았다.

최근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첫아이를 낳았는데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가 임의로 아기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친정엄마와 함께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이혼상담을 했다.

있지만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의 외도이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부인을 무시하고 폭행을 일삼은 남편의 이혼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을 보면 그 나라의 형편을 알 수 있고, 그 남편을 보면 그 아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전문가들은 행복을 상대방에게서만 찾지 말고 부부관계를 공부하라고 권한다. 사람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

사람들은 천생연분을 만나는 것을 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천생연분을 완성시키는 것은 운이 아니라 노력이다.

인간의 욕망 끊임없이 계속 그 욕망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캉의 욕망이론' 관심끌어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갖는다. 그리고 그 욕망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1901~1981)은 욕망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렇다면 불교는 욕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욕망은 무명(無明)에서 시작되 연기법에 의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된다.

한국인 4명 복제 신청 윤리규제법 만들어야

미국의 응용세포기술연구소(ACT)가 지난 18일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윤리는 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경희의료원 이보연 교수팀이 4세포까지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데 성공하고 실험을 중단했었지만 ACT의 복제는 4백세포까지 분열한 배아를 얻었다는 점에서 인간 복제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ATC는 정상적인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14일 이후부터는 생명체로 간주, 이전 단계에서 이를 소각 처분했으며 실험 목적도 인간 치료에 필수적인 기간 세포를 얻는 데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에 들어온 다국적 인간복제기업을 표방한 클로나이드사 한국지사에도 한국인 4명이 자신을 복제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분쟁과 투쟁과 살육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과 개인간, 집단과 집단간, 민족과 민족간, 국가와 국가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투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탐내고, 증오하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는 일부 광신적인 타종교인들의 공격적 침탈행위로 인해 수많은 법당에서 불질이 치솟았고, 수많은 성보(聖寶)가 부서졌으며, 심지어는 수관성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군법당의 불상이 내팽개쳐지고, 군불교 법당앞에 오물이 뿌려지는 만행도 겪었다.

정관청에서도, 행정직 대통령도, 국가시정일 선택에서도, 우리는 종교차별을 겪어왔고 참으로 치욕적인 홀대를 수없이 당해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군부내에서 군부대원에 사찰을 짓는 것을 둘러싸고 특정한 불자였던 김모장군이 군법당을 지으면서 받은 시주금을 뇌물로 간주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불교계가 분개해 하고 있다.

25개 불교단체들이 '군법당 건립 시주금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 "군법당 건립에 사용된 3천만원의 시주금을 뇌물로 인정,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군정신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군법당을 뇌물수수의 수단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국불교 전체를 옥막이는 행위이며 군내에서의 조직적인 불교탄압 행위"라고 규탄했다.

만일 이들 불교단체들이 지적한대로 군부내에서 '조직적인 불교탄압 행위'가 이루어지고 의도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일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체 군내부의 법당설립추진이 위축되고 나아가 군법교포교가 보이지 않는 압력과 탄압을 받게된다면 군당국은 물론 김대중정부 자체도 '종교차별정권'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듯 우리는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참혹한 세계의 종교전쟁을 보아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부 극단적인 개신교도들의 타종교 침탈행위에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윤청광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Advertisement for Yoon Hongsuk's book 'Buddhism & Culture'. Includes a photo of the author, a list of book titl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Advertisement for 'Buddhism & Culture' magazine. Features a list of articles, the autho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